

# ‘큰물’ 펄펄 나오던 마을…바다밭은 바닥 드러내고

[제주잠녀] 109. <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80)제주시 신촌어촌계

등록 : 2008년 03월 17일 (월) 16:48:41  
최종수정 : 2008년 03월 17일 (월) 16:48:41

고미 기자 ✉ [popmee@jemin.com](mailto:popmee@jemin.com)

‘물은 파도가 일지 않으면 저절로 고요하고, 거울은 먼지가 끼지 않으면 저절로 깨끗하다’고 했다.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을 만드는 것은 욕심 때문이란 말이리라. 바다를 끼고 삶을 일궈던 사람들에게 욕심은 그다지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모처럼 따뜻한 봄볕이 쏟아지는 사이를 험 없이 자맥질을 하는 잠녀들로 바다에는 잔 물결이인다. 누가 그것을 파도라 부를까.



신촌어촌계 포구 모습. 예전에는 가운데 다리가 없었으나 포구가 확장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다리 왼쪽이 중동 바랑알 공동 양식장이다.

## #하고픈 말 감춘 바다

바랑알 양식장이 분주하다. 모양을 갖춘 물건은 ‘아직’이지만 손이 많이 가는 성계라도 거둬 바다 속도 정리하고 몇 푼 돈이라도 쥐어볼 심산이다. 바랑알은 중동 잠녀들의 작업터다.

11개 자연부락으로 이뤄진 신촌에서 바다밭을 일구는 마을은 동동과 중동, 서동 등 세 곳이다.

마을이 큰 탓도 있지만 누가 그러라고 했는지 기억도 하기 전부터 바다를 나눠 써왔다. 그래서 이곳에는 탈의장만 세 곳이다.

바랑알이 중동 잠녀들의 차지라면, 속칭 앞계알은 서동 잠녀들이, 큰코지는 동동 잠녀들이 주름잡는다.

그것도 한참은 전 일이다.

멀리 삼양화력발전소가 보인다. 역시나 발전소 매기다. 김행규 어촌계장(76)은 잠시 젊은이에게 자리를 넘겨준 것을 제외하고 20년 넘게 어촌계 일을 해왔다.

김 어촌계장은 “발전소 때문이라는 잡녀들의 말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며 “발전소가 들어서기 전까지 연간 5000kg는 됐던 소라 수확량이 지금은 500kg를 채울까 말까할 정도로 쏙 줄었다”고 말했다.

어촌계 사정 때문에 더 이상 나이를 이유로 물러설 수 없어 다시 어촌계장 일을 맡았지만 “그다지 할 일이 없다”는 말로 바다 사정을 대신했다.

이곳 잡녀는 모두해서 48명. 이중 상시로 바다에 들어가는 잡녀는 25명 남짓 된다. 이중 80대가 4명이나 되고 나머지도 환갑을 훌쩍 넘겼다.



신촌 포구에 있는 용천수



바랑알 양식장

# 바다 사정은 바다 사람들이 안다

동·중·서동 바다로 나뉘었다고 해도 소라 생산량은 엇비슷하다. 그나마 돈이 되는 천초는 동동이 가장 많이 났다. 다음은 중동, 서동의 순이다. 툇은 동동 보다 중동 사정이 나았다. 발전소에 가까운 서동 바다는 말 그대로 ‘가물었다’고 했다.

이전 가뭄이면 소방차까지 급수를 위해 찾았다는 용천수가 한 두곳이 아닌 이곳에서 ‘가물었다’는 말은 쉽게 꺼내기 어려운 말이다.

용출량이 풍부해 ‘큰물’이라 불리는 용천수 근처는 온통 큰물 투성이다. 식당도, 구멍가게도, 심지어 다세대주택 이름까지도 모두 큰물이다.

먹이가 있는 곳을 골라 지난해 12월 12만 마리 전복 종패를 뿌렸다. 세곳 바다 골고루 뿌려둔 전복은 아직은 완성형을 알 수 없다.

조금씩 변해 가는 바다 환경 탓에 언제 중동·동동바다가 서동 바다처럼 바닥을 드러낼지 모른다. 바다가 변해 가는 속도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날을 기다려줄 잠녀가 몇 명이나 될까하는 점이다.

좀 늦게 가는 것이 창피한 일은 아니다. 무엇이든 과정이 있는 법이고, 그 과정을 견뎌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의 바다는 언제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리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문제는 사람들이다. 돌아온 바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무 빨리 세월을 탄다.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제주시 조천어촌계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www.haenyeo.go.kr](http://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